

주말기획 | ‘야구대통령’ KBO총재의 모든 것

한때 ‘낙하산 씬터’…첫 민선 박용오 총재 이후 자리잡았다

KBO 이사회(사장단 모임)는 29일 만장일치로 정운찬 전 국무총리를 제22대 KBO 총재(커미셔너)로 추천했다. 조만간 총회(구단주 모임)의 서면결의를 통해 KBO는 3년(2018~2020년) 임기의 새 수장을 맞는다. 커미셔너는 ‘야구대통령’이다. 수장의 교체는 KBO리그의 새로운 시대를 예고하고 있다. 한국야구의 구조상 아마추어야구에까지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과연 커미셔너는 어떤 자리일까. 어떤 권한과 책임이 뒤따를까. KBO 총재의 역사와 함께 떠나는 구본능 총재의 공과를 돌아본다. 아울러 새롭게 오는 정운찬 신임 총재 앞에 놓인 과제도 짚어본다.

역대 KBO 총재들의 빛과 그림자

총 12명 총재중 9명이 정·관계·군부 인사 1998년 박용오 총재 전까지 유력인사 씬터 유영구·구본능, 무보수·10구단체제 기여

KBO는 1982년 정부 주도로 출범한 한국프로야구를 총괄하는 기구다. 총재의 권한도 막강하다. 초창기부터 정치권 인사들이 ‘낙하산’을 타고 잇달아 KBO 수장으로 취임한 배경이다. 초대 서종철 총재부터 현(19~21대) 구본능 총재까지 모두 12명이 KBO를 이끌었는데, 무려 9명이 정·관계 또는 군장성 출신이었다. 12~14대 박용오 총재, 17~18대 유영구 총재, 구본능 총재만이 정치권과 무관했다. 또 3년 임기를 채운 총재도 4명에 불과하다. 서종철 총재를 비롯해 3~4대 이웅희, 박용오, 구본능 총재뿐이다.

●KBO의 기틀 다진 서종철 총재

서종철 총재는 육군참모총장, 국방부 장관을

역대 KBO 총재			
구분	이름	재임기간	비고
1~2대	서종철	1981.12.11~1988.3.27	전(前) 국방부장관
3~4대	이웅희	1988.3.28~1992.5.27	전 문화공보부장관
5대	이상훈	1992.5.28~1993.9.16	전 국방부장관 전 재향군인회 회장
6대	오 명	1993.11.26~1993.12.21	웅진출판사리본 회장 전 과학기술부장관 전 건국대 총장
7대	권영해	1994.3.21~1994.12.23	전 국방부장관 전 국가안전기획부 부장
8대	김기춘	1995.2.8~1996.6.8	전 법무부장관 전 국회의원
9~10대	총재형	1996.7.4~1998.5.26	전 국회의원
11대	정대철	1998.5.27~1998.9.15	전 국회의원
12~14대	박용오	1998.12.8~2005.12.11	전 두산그룹 회장 전 성지건설 회장
15~16대	신상우	2006.1.10~2008.12.16	전 국회의원 전 해양수산부장관
17~18대	유영구	2009.2.24~2011.5.2	전 명지학원 이사장
19~21대	구본능	2011.8.22~현재	화성그룹 회장

지낸 군 출신이지만 KBO와 한국프로야구의 초석을 튼튼하게 닦은 덕분에 지금까지 야구계의 큰 존경을 사고 있다. 3만석 규모의 사직구장 신축에 앞장섰고, 겨울마 단계의 한국프로야구가

미·일프로야구와 교류를 트는 데 기여했다. 1988년 3월 서종철 총재 퇴임 이후 1998년 12월 박용오 총재가 취임하기까지 10년간은 KBO가 정·관계 및 군부 유력 인사들의 씬터 같은 곳이 됐다. 특히 6대 오명 총재는 1993년 11월 26일부터 12월 21일까지 고작 26일간 재임해 역대 최단기 총재로 남아있다. 체신부 장관으로 입각하느라 KBO를 스쳐 지나갔다. 바로 그 뒤를 이은 7대 권영해 총재도 1994년 3월 21일부터 12월 23일까지 278일만 재임한 뒤 안기부장으로 옮겨갔다.

●첫 ‘민선’ 커미셔너 박용오 총재

정치권 낙하산 인사들의 폐해가 커지자, 야구계 내부에서 총재를 추대하기에 이르렀다. 1998년 12월부터 만 7년간 역대 최장기간 재임한 박용오 총재는 이 같은 시대적 배경 속에 탄생했다. 최초의 ‘민선’ 커미셔너였던 박용오 총재는 당시 두산그룹 회장이었다. KBO가 출범한지 17년 만에 구단들의 이익을 직접적으로 대변하는 총재가 등장한 것이다. 박용오 총재는 큰 족적을 남겼

다. 그가 취임한 무렵 국제통화기금(IMF) 구제금융 사태의 불똥은 프로야구에도 튀어 쌍방울과 해태의 매각 문제가 최대 난제였는데, 각각 SK와 KIA를 끌어들이 위기를 수습했다. 프리에이전트(F·A) 제도, 시즌 타이틀스폰서 도입 등도 빼놓을 수 없는 치적이다. 또 박용오 총재의 재임기에 지금의 한국프로야구선수협회도 태동했다. 당시 KBO와 박용오 총재는 선수협 설립에 제동을 걸었으나, 정부의 개입으로 한 발 물러섰다.

●9·10구단 넣은 유영구&구본능 총재

15~16대 신상우 총재 하에서 KBO는 다시금 정치권의 외압에 휘말리며 일시적 참체기를 겪었다. 그러나 2009년 2월 유영구 전 명지학원 이사장이 KBO 총재로 취임하면서 민선체제를 회복했다. 유영구 총재는 비록 개인비리로 불명예 중도 퇴진했으나, 제9구단 NC의 창단을 주도하며 10구단 체제의 밑그림을 완성한 큰 공을 세웠다. 유영구 총재는 또 ‘무보수 봉사’를 선언해 후임자인 구본능 총재에게까지 영향을 끼쳤다.

정재우 전문기자 jace@donga.com

물리나는 구본능 총재
끝나지 않은 야구사랑

탈북자·다문화가정 청소년야구단 창단

구본능(68) 화성그룹 회장은 2011년 8월 22일 제19대 KBO 총재에 올라 6년 4개월여 동안 자리를 지켰다. 7년간(1998년 12월 8일~2005년 12월 11일) 재임한 고 박용오 전 총재(12~14대)에 이어 역대 두 번째 최장수 KBO 커미셔너로 역사에 남게 됐다.

구 총재는 진정 야구를 사랑하는 인물이었다. 경남중 시절까지 야구선수로 활동하다 집안의 반대로 그만뒀지만, 칠순을 앞둔 지금까지 한순간도 야구의 곁을 떠나지 않았다. 야구발전을 위한 길이라면 사재를 쾌척하는 데 주저하지 않았다. 개인적으로 12만장의 야구사진을 수집해 2005년 ‘한국야구 100주년 사진전’을 열기도 했고, 장충리틀야구장 개보수를 위해 개인재산을 내놓기도 했다.

이런 야구에 대한 애정과 헌신은 KBO 총재로 부임한 뒤에도 지속됐다. 화성그룹 회장으로서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와중에도 일주일에 정기적으로 두 번씩 KBO에 출근했고, 특별한 일이 생길 때도 KBO에 들러 현안을 직접 챙겼다. KBO 한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일주일 중 반은 그룹에, 반은 KBO에 계셨다고 보면 된다”며 “역대 어떤 총재보다 야구발전에 관심을 기울이고 고민을 많이 하신 분이요”고 설명했다.

구 총재는 KBO리그의 외연 확대에 지대한 공을 세웠다. 10구단 kt의 창단을 이끌어내면서 KBO리그의 안정화를 도모했다. 야구계 숙원사업인 새 야구장 건설도 속속 이뤄졌다. 광주·기아챔피언스필드에 이어 대구삼성라이온즈파크와 고척돔이 탄생했고, 창원 새 야구장도 2019시즌 개장을 앞두고 있다. 2010년까지만 해도 500만 관중 시대였지만, 600만과 700만을 넘어 2016~2017년 2년 연속 800만 관중을 돌파해 변영의 기틀을 마련했다.

프로야구를 관장하는 KBO 수장이지만, 아마추어야구 발전에도 힘을 기울였다. 야구발전기금(베이스볼 투모로우 펀드) 300억원을 조성해 야구팀 창단을 유도한 것은 가장 큰 치적 중 하나로 평가할 만하다. 3년간 초등학교 3000만원, 중학교 1억5000만원, 고등학교 4억원을 지원하면서 결실을 맺고 있다. 고교야구팀 수만 해도 창단 지원 시작 당시 53개교였지만, 현재 74개로 무려 21팀이나 늘었다.

그러나 임기 말 승부조작과 해외불법도박, 음주운전, 심판과 구단 직원간의 금전거래, KBO 내부비리 등 각종 사건사고들이 끊이지 않으면서 책임자로서 관리감독에 실패한 부분은 오점으로 남았다.

KBO 총재에서 물리나더라도 그의 야구에 대한 헌신은 계속될 듯하다. 벌써부터 탈북자 어린이와 다문화가정 어린이들을 위한 청소년야구단을 창단해 마지막까지 야구에 봉사하려는 구상에 착수했기 때문이다.

이재국 전문기자



정운찬 전 국무총리가 제22대 KBO 총재로 추대됐다. ‘소문난 야구광’에서 ‘야구대통령’으로 변신할 정 전 총리가 정치력과 행정력을 발휘해 KBO와 한국프로야구의 질적 성장을 이끌 수 있을지 주목된다.

프로야구 만성적자…‘경제통’ 새 총재 앞에 놓인 큰짐

정운찬 신임총재에 기대하는 것들

프로야구 산업화 위한 인프라 구축 시급
미래 수익창출…국제경쟁력 확보도 숙제

제22대 KBO 총재로 정운찬 전 국무총리가 이사회에서 만장일치로 추천되자 야구계는 전반적으로 환영하는 분위기다. 평소 야구에 대한 애정이 남달랐고, 야구 지식과 식견도 갖추고 있다는 사실이 잘 알려져 있어 야구계나 팬들도 대부분 거부감이 없다. 그러나 야구에 대한 애정과 지식은 커미셔너로서 기본적 소양일 뿐이다. 그 앞에는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재해 있다.

KBO리그는 신임 총재가 취임하는 내년이면 출범 37년째를 맞는다. 그러나 아직도 구단들은 만성적자에 시달린다. 최근 들어 각 구단이 다양한 마케팅 활동과 수익모델 창출을 시도하고 있지만, 결승마 단계에 불과하다. 대부분의 구단이 여

전히 모기업의 지원을 받아 운영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를 지낸 정통 경제학자 출신의 신임 총재가 프로야구를 진정한 산업화의 반석 위에 올려줄 것으로 야구계는 기대하고 있다.

우선 하드웨어인 인프라 구축이다. 구본능 총재 시절 박차를 가한 인프라 개선작업을 마무리해야 한다. 부산 사직구장과 대전 한화생명아리움스파크는 부분적 리모델링을 거듭하고 있지만, 한계에 부딪히고 있다. 새 구장 건설이 필요하다. 여기에 서울시가 추진하는 잠실구장 이전과 대계구장 건설이 제대로 완성되도록 해야 한다. 국무총리 출신인 만큼 정치력과 행정력을 발휘해 정부, 국회,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이끌어내야 한다. 구장 임대료 문제 등을 유연하게 해결해 구단이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도 만들어야 한다.

물론 인프라 개선만이 해결책은 아니다. 미래지향적인 수익구조를 창출해야 한다. 마케팅부터 팬서비스까지 프로야구의 가치를 업그레이드하

고, 4차 산업혁명시대에 대응할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경기력 향상과 국제경쟁력 확보에도 신경 써야 한다. KBO리그는 10구단 체제로 들어서며 외연 확장은 성공했다. 그러나 반대급부로 질적 하락이 시달리고 있다. 내실을 다져야 할 때다. 선수층을 확대하고 경기력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와 손잡고 프로의 근간이 되는 아마추어야구의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 이를 위해 선수들뿐 아니라 지도교육시스템도 새롭게 정비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최근 팬들을 실망시키고 있는 승부조작, 도박, 심판비리, 음주운전, 부적절한 SNS(사회관계망서비스) 문제 등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다. 여기에 각종 불합리한 제도와 규약을 개선하고, KBO 사무국이 투명하면서도 건강한 운영을 통해 팬들에게 신뢰받는 조직으로 거듭나게 이끄는 것도 신임 총재의 과제다.

이재국 전문기자 keystone@donga.com

알고 보면 더 흥미로운 MLB 커미셔너

초대총재 임기는 종신
1대 랜디스 24년 재임

1919년 승부조작사건 후 다음해 제도 도입

KBO에 총재가 있다면, 메이저리그(MLB)에는 대표자인 커미셔너(Commissioner)가 있다.

MLB에 커미셔너 제도가 처음 도입된 시기는 1920년이다. 1919년 MLB 역사상 가장 큰 오점으로 기록된 승부조작 사건 ‘블랙삭스 스캔들’이 계기가 됐다. 사건 이듬해인 1920년 연방법관이었던 케네소 마운틴 랜디스는 이 사건에 연루된 8명의 선수를 영구제명 조치했고, 그해 MLB 초대 커미셔너로 취임해 1944년까지 24년간 재임했다.

이후 제2대 해피 챌들러(1945~1951년)~제3대 포드 프리(1951~1965년)~제4대 윌리엄 에커트(1965~1968년)~제5대 보위 쿤(1969~1984년)~제6대 피터 위버로스(1984~1989년) 커미셔너가 제7대 바틀렛 지아마티(1989년)~제8대 페이 빈센트(1989~1992년)~제9대 버드 셀릭(1992~2015)을 거쳐 지금은 톰 맨프레드 커미셔너가 2015년부터 MLB의 수장을 맡고 있다.

MLB 초대 커미셔너의 임기는 종신이었다. 랜디스 커미셔너가 24년간 재임한 배경이다. 현재 커미셔너의 임기는 5년이며, 2회 연임이 가능한데 셀릭 커미셔너는 구단주들이 만장일치로 그의 재계약을 강력하게 요청해 2012년 1월이었던 임기가 연장된 사례다.

ESPN에 따르면, 커미셔너의 연봉도 해를 거듭할수록 천정부지로 치솟았다. 제5대 쿤 커미셔너의 연봉은 25만 달러였고, 제6대 위버로스 커미셔너 시절 45만 달러로 경총 뛰었다. 2012년 셀릭은 무려 2200만 달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짧고 굵게 임기를 마친 지아마티 전 커미셔너의 행보는 두고두고 회자된다. 예일대 총장을 지낸 지아마티는 1989년 부임하자마자 피트 로즈의 도박 사건을 조사했고, 그해 8월 로즈를 야구계에서 영구 제명했다. 그리고 1주일 뒤 심장마비로 사망해 주위를 안타깝게 했다.

강산 기자 posterboy@donga.com

신상우 총재팬 ‘연봉 2억+관공비 월 1000만원’

KBO총재 연봉은 얼마?

KBO총재는 ‘야구 대통령’으로 불린다. 국민스포츠인 프로야구를 대표하는 명예로운 자리다. 과거 정치인들이 앞 다투며 맡고 싶어 했던 이 유다. 고액의 연봉이 지급됐고 정치적 위상에 어울리는 막대한 권한이 주어졌다. 그러나 최근 흐름은 달랐다. 위상은 좀 더 명예직에 가까운 자리가 됐고 역할은 메이저리그 커미셔너처럼 리그의 CEO같은 경영자적인 운영과 판단이 중요해졌다. 과거 정부와의 관계 및 소통이 중요했다

면 현재는 리그가 확장되고 스포츠 산업화가 진행되는 등 시장 환경이 바뀌었기 때문이다.

고(故) 신상우 전 KBO총재(2006년 1월~2008년 12월 재임)는 7선 의원 출신에 취임 당시 정권의 핵심 실세 원로였다. KBO 총재로 연봉 2억원과 월 1000만원의 판공비를 제공받았다. 그러나 현대 유니콘스의 해체 과정에서 스스로 연봉을 40% 삭감하기도 했다.

신 전 총재 후임으로 취임한 유영구 전 총재(2008년 12월~2011년 5월 재임)는 KBO로부터 일체의 연봉을 받지 않았다고 선언했다. 명

유영구 전 총재부터 無연봉 직무수행 새 총재에 ‘명예직’ 강요하기엔 부담

지학원과 명지의로재단 이사장을 역임한 유 전 총재는 사학명문가 출신이다. 유 전 총재가 행정명의로 구속수사를 받으며 사임해 2011년 8월 취임한 구본능 현 총재도 범LG가 기업인 회성그룹 회장으로 연봉을 받지 않고 직무를 수행하고 있다.

과연 정운찬 전 국무총리가 새 KBO총재에 취임하면 얼마의 연봉을 받을까. 자산가인 유영구 전 총재, 구본능 총재와는 다른 학자, 정무직 공무원 출신인 정 전 총리에게 ‘명예직’을 강요할 수는 없다. KBO 관계자는 “아직 새 총재의

예우와 관련해 정해진 것은 없다”고 답했다. KBO 규약에는 ‘임원(총재, 사무총장)의 보수는 총회가 정한 별도의 임원 임금 지급규정에 따른다’고 되어있다.

KBO 총재는 구단주가 참여하는 총회, 각 구단 대표가 참가하는 이사회 의장을 맡는다. 구단간의 분쟁을 중재하는 재정 권한도 가진다. 구단이 규약을 위반한 경우 연고지역, 회원자격 박탈도 결정할 수 있다. 또한 규약에 따라 총재의 지시, 재정, 재결 및 제재는 최종결정이며 모든 리그 관계자에게 적용되는 구속력을 가진다. 고 규정할 정도로 막강한 권한을 부여 받는다.

정상급 예우, 막대한 권한. 그만큼 한국프로야구의 CEO인 KBO 총재의 역할은 중요하고 어깨는 무겁다.

이경호 기자 rush@donga.com